

지역 소식통

부안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서 및 현판 전달

16일 부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25개소 중 3개소(행안 성일농장, 계화 현대농장·키움 농장)를 권역별 부안군수가 방문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서 및 현판을 전달했다.

이번 2020년 하반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25개소가 지정됐고 상반기에는 17개소가 지정돼 2020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수는 42개소이다.

부안군은 2020년 전북도의 신규 지정 269개소 중 42개소로 16%를 차지하여 전북에서 신규 지정 농가수는 1위를 차지했다. 현재까지 부안군내에서는 총 69개소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되었으며(2017년 8개소, 2018년 5개소, 2019년 14개소, 2020년 42개소) 2023년도까지 80개소를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온통(On通) 건강 드림 교실 참여자 모집

정읍시보건소가 코로나19에 따른 신체활동이 부족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우울감 해소를 위한 비대면 운동프로그램 '2021 온통(On通) 건강 드림 교실'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보건소 내 다수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건강관리사업의 공백을 해소하고 주민 간 건강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통(On通) 건강 드림 교실'은 체중조절 희망자와 만성질환 유증상자 등 지역 내 거주하는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2기로 나눠 운영되며 1기는 3월 2일부터 4월 29일까지, 2기는 5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각 15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신청자별 사전검사(인바디 측정, 1:1 맞춤형 운동 처방 및 영양상담 등)와 주 1회 한방진료(침 요법, 상담 등), 주 2회 전신 순환 체조 등이며, 온라인 실시간 화상 교육으로 진행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트랙터 시뮬레이터 안전 교육

정읍농기센터, 상시 체험·농기계 사고방지 훈련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트랙터 운전이 미숙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트랙터 안전 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트랙터 안전 운전 시뮬레이터는 현재 영농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트랙터를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체험식 교육 자재다.

도로를 주행하는 것과 동일한 가상 화면을 통해 올바른 교통 지식과 안전 상식을 습득할 수 있고, 도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다.

특히 경사로 주행 등과 같이 실제 농기계로는 불가능한 연습 조건에서 위험 상황을 미리 예측해 대처하는 능력을 사전에 키울 수 있다.

또한, 운전내용에 대한 피교육자의 안전 운전 세부 준수사항(운행 또는 작업 중 사고 여부, 법규준수 등)을 즉시 평가해 교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교육생의 수준에 따라 S 코스와 T코스, 차도, 농로 등 도로 주행 연습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의한 사고방지 훈련이 가능하다. 시는 시뮬레이터 교육을 통해

폭염이나 혹한 등의 기상 조건에 상관 없이 상시 체험교육이 가능해짐에 따라 교육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 위험요인 등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교육은 효과가 높으리라 기대하며, 다양한 체험교육을 통해 농기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트랙터 시뮬레이터 교육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기계지원팀(063-539-628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과학대, 윤준병 국회의원으로부터 기관 표창

정읍시, 농촌 공동체 활성화 기여

전북과학대학교는 2020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맞아 그간 농촌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능나눔활동 등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5일 윤준병 국회의원으로부터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전북과학대학교는 대학생들의 재능과 특기를 살려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농촌 마을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교육과 구강 검사, 시력검사, 근육 안경 측정, 이·미용 봉사, 행복 사진 촬영 등 재능 나눔을 실천해왔다.

또한, 정읍시와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대학생들의 전문지식과 재능을 농촌 마을에 나누며 지속 가능한 농촌, 함께하는 농촌 모델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과학대는 지속적인 도농 교류를 통해 농촌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사회공헌 인증단체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9년 재인증을 획득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남다른 열정으로 농촌주민의 복지향상과 도농 교류 활동에 큰 기여를 해 온 전북과학대학교의 공로를 높이 평가



전북과학대학교는 지난 15일 윤준병 국회의원으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표창장을 전달받은 황인창 총장은 "앞으로도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지속 가능한 농촌, 함께하는 농촌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청 공무원, 고창사랑상품권 구입

고창군청 공무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군 공무원 노동조합이 고창사랑상품권 4000만원을 구입해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로 했다.

이번 지역상품권 구매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앞서 고창군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일부를 고창사랑상품권으로 1억1000만원 상당을 구입하기도 했다.

이 기간 군청 소속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들은 자발적인 상품권 구매에 동참해 명절 전 전통시장과 관내 마트 등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군은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상권 침체를 극복하는 데 지역상품권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민공익수당 등을 비롯한 각종 시책 지원금도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공무원과 주민들이 지역경제 살리기에 눈물겨운 노력을 보여주며 예상보다 많은 상품권이 판매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이 운영 중인 CCTV통합관제센터

CCTV 안심 지킴이 역할 '톡톡'

고창군, 올해 3억9000만원 투입... 우범지역 등 44개소 추가 예정

고창군이 운영 중인 CCTV통합관제센터가 범죄·실종·쓰레기투기·재난 등으로부터 군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관제요원 11명이 4초 2교대로 365일 24시간 943여대의 CCTV를 모니터링하며 취약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2015년 1월 개소 후 범죄행위, 실종자,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생활안전과 관련된 943대를 관제한다.

또 해당 내용을 경찰서와 유관기관 관련 부서에 통보해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앞장섰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가 다녀간 이동장소를 CCTV

영상분석을 통해 접촉자 확산방지 등 선제적 영상분석을 지원했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등 81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해 긴급한 상황이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해 군민안전 인프라 확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3억9000만원을 투입해 우범지역 등 44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1월말 기준 고창군 관내에는 마을 608개소에 2250대를 포함해 총 945개소 3193개의 CCTV가 설치돼 있다.

고창군청 정서진 율령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범죄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영·유아대상 북 스타트 사업 본격

정읍시가 자라나는 아이들이 책과 함께 풍요롭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출생과 함께 책 꾸러미를 선물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읍시 도서관은 생후 0개월부터 35개월 대상의 영유아에게 책 꾸러미를 배부하는 '북 스타트(book start)'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는 의미의 '북 스타트'는 책을 통해 아기와 부모 사이에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지역사회 영유아 독서문화 운동이다.

유아기에 책을 나눠줌으로써 독서를 습관화해 책과 함께 올바른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로 10년째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 책 꾸러미는 생후 0개월에 따라 예코백에 담은 그림책 2권과 아기 스킨케어, 스킨케어, 가이드북 등으로 구성됐다.

책 꾸러미 수령 대상자는 생후 직후부터 35개월까지 영유아와 보호자로, 1단계는 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2단계 꾸러미는 기적의 도서관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홈페이지(lib.jongseup.go.kr)를 통해 택배로 수령할 수 있다.

단, 신청자는 담당자 메일로 정읍시 거주 확인용 주민등록등본을 접수해야 한다.

또한 3월부터 10월까지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책 읽어주기와 베이비 마사지, 촉감 등 신체 오감 발달을 높여주는 '북 스타트 책 놀이'를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거나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기적의 도서관(539-64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